

주체의 기치높이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에로

력사적인 봄 명월구 회의 기념일을 맞으며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달고 온 나마다 산악같이 일어서 노도처럼 빠져나가는 적동적인 시기 우리는 봄명월구 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8.7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고 있다.

이 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시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지하여 혁명투쟁의 뜻과는 승리를 이루온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영적을 가슴뜨겁게 들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봄명월구 회의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함께 본래의 자본을 확보하는 혁명적 조치로선을 펼쳐하자』라는 책자

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좌

경적 모험주의로선을 배격하고 혁명적 조작로선을 펼쳐하자』라는 책자

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5.30 폭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분석

총파하시었으며 기본군중을 분분히 접속하고 그 주위에 각계 각종 반일적 평

을 글에 단정시켜 전민족을 하나의 정지적 평으로 만족시킬데 대한 혁명

적 조작로선을 제시하였다.

바로 이 혁사적인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좌경적 모험주의로선에

준엄한 철수를 내리셨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술이면 혁명조

직으로부터 대중을 티랄시키고 대부

분의 지방혁명조직들을 폐지시켜 혁

명일에 업종별 난판을 조성시켜 좌경

적 모험주의로선의 부당성을 춘련회

단죄해나갈 만족시킬데 대한 혁명

적 조작로선을 제시하였다.

바로 이 혁사적인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좌경적 모험주의로선에

준엄한 철수를 내리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안도,

언길, 화룡, 왕정, 종성, 은성일대 혁명

조직들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

였습니다.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고 좌

경적 모험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는 혁신선사선의 길, 바치신

로고를 우리 어찌 걱정없이 더듬을수

있으리.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안

길이었으면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퇴밀건 강남군에

여기에서 보살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에 대한 이

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속에 천해지는 이야기를

중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은 장군님의 혈통이

죽우면서 온 것입니다.』

수십년간 어느 날 깊은 밤이 있

다. 함경남도의 한 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무르심을 알게

되었다.

낮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회의에서 토의된 시비년

도 화비료생산문제와 관련하여

이 중요한 과업을 주실것이라고

예감한 일군은 한말음에 가당았

다.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

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그이께서는 흥남비료연합기

업소로 동지들이 울해 비료생산

계획을 수립하자면 이제 무려

긴장한 전투를 벌려야 하겠는데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것을

생산보다 중시하신 문제

를 조직하였다고 말씀을 해

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에서는

로동계급의 건강에 관한 문제인

예전과 같은 차이를

갖고 계시는지도 좋겠지만 이왕

이번 병원을 하나 새로 짓는 것

이 어떤가고 하시였다.

일군은 선호 대립을 유통수가

없었다. 병원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

이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일군에게

점점 더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경국의 병원들에

서 유능한 치과의사들이

종남으로 향해 되었으며 흥남으로

로 향해 되었으며 일군들은

이제는 일군에게

복지가 되었다.

일군은 소리없이 걸어갔다.

하지만 우리 일군은

모든 우려와 함께

행복한 사람들이 이 세상 또 어

데 있으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병원을

새로 짓고 치료사업을 대체으로

로 향해 되었으며 일군들은

이제는 일군에게

복지가 되었다.

차기에는 일군에게

농업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주체비료생산기지와 잇닿은 탄전의 숨결

남 양 탄 광 에 서

남양탄광이 석탄생산률정으로 세계에 높고있다.

당의 새료운 전략적로선판 철에 맷쳐나선 탄왕의 일군들과 판부들은 주체비료생산기지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줄 일념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농업전선에 란약을 금급하는 병기장인 남풍첨화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전력과 석탄을 대주여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여라 합 니다.』

모든 경, 막장들에서 행렬한 생활돌격의 불파리인 세 차례 일고있다.

출전공들은 각이한 압설조전에 맞는 일선 일파방법과 굴진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편 속수공, 편 속당파를 끌어내고 있다.

굴진이 앞서나가니 채탄공들도 기세충진하여 석탄생산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에 맞게 탄광일군들은 친선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

기하고 있다.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지체의 힘과 기술로 풀기 위한 두정도 적극 밀고 나가고있다.

얼마전에는 장거리벨트콘베이션화공사를 성과적으로 걸속으로써 유난히 해설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여 석탄생산을 종전보다 1.5배로 늘이고 있다.

사실 긴장한 생산을 전행하면 서 큰 규모의 공사를 동시에 벌리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매장면이 많은 구역으로 새로운장을 신설하고 수원m의 구간에 벨트콘베이터를 놓아야 하는 공사랑은 범야였다.

그러나 운송능력을 높이는 것은 편석생산을 늘이는 것이며 나아가서 주체비료생산과 함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자각한 탄광일군들과 기술자, 판부들은 주체비료생산에 크게 어려울 할 열의와 한시락 같이 펼쳐나섰다.

전두장은 일정과 함께는 3배로 넘쳐 수행하면서 훤신적인 투쟁을 벌여 최단기간내에 정기전을 완성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품과구를 열어놓았다.

현일 놀라운 굴진실적을 올리

며 힘차게 전진해나가던 어느날 갑자기 경의 한부분이 봉파되면서 전후원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조성진 긴급한 정황은 모두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많은 구간을 다시 끊고나가야 하는 조건에서 일정계획을 트린다면 전반적인 공사에 큰 영향을 줄수 있었던 것이다.

순간도 지체할수 없었다. 『동물들, 주체비료생산자들이 우리를 밟고 전투를 벌리고 있다. 나를 따라라 앞으로!』

대오의 일정에 선 탄광일군들의 훤신적인 투쟁모습에서 보다 큰 고무를 받은 전원들은 전인불같이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그때 풀이 풀이커버 풍차를 책임졌던 김영길기술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탄증산으로 주체비료생산기지에 보내주고있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굴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민은 처음부터 가로

놓았다.

현일 놀라운 굴진실적을 올리

많은 자체와 부수품들을 자체로 막들이 보장하였고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현원부문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벨트콘베이션화공사를 성과적으로 완성하였다.

탄광의 일군들과 판부들은 새로운 벨트장을 재구하고 만수원m의 구간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탄광일군들과 공사에 동원된 판부들은 『현원을 책임지고 만수원m을 보증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이들은 수십만톤의 블록으로 많은 쇠봉발, 풍크리트혼합물을 퍼복용을 절실히 하기 위하여 냉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세상을 깨끗이 하였다.

그때 풀이 풀이커버 풍차를 책임졌던 김영길기술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굴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석탄증산으로 주체비료생산기지에 보내주고있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굴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석탄증산으로 주체비료생산기지에 보내주고있다.

현일 놀라운 굴진실적을 올리

많은 자체와 부수품들을 자체로 막들이 보장하였고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현원부문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 날 대도구와 함께는 사람들이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탄광일군들은 『현원을 책임지고 만수원m을 보증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이들은 수십만톤의 블록으로 많은 쇠봉발, 풍크리트혼합물을 퍼복용을 절실히 하기 위하여 냉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세상을 깨끗이 하였다.

그때 풀이 풀이커버 풍차를 책임졌던 김영길기술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굴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석탄증산으로 주체비료생산기지에 보내주고있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怙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석탄증산으로 주체비료생산기지에 보내주고있다.

현일 놀라운 굴진실적을 올리

기계공업성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특히 성의 해당 일군들은 자체로 막들이 보장하였고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현원부문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탄광의 일군들과 판부들은 새로운 벨트장을 재구하고 만수원m의 구간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 날 대도구와 함께는 사람들이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탄광일군들은 『현원을 책임지고 만수원m을 보증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이들은 수십만톤의 블록으로 많은 쇠봉발, 풍크리트혼합물을 퍼복용을 절실히 하기 위하여 냉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세상을 깨끗이 하였다.

그때 풀이 풀이커버 풍차를 책임졌던 김영길기술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怙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석탄증산으로 주체비료생산기지에 보내주고있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怙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현일 놀라운 굴진실적을 올리

많은 자체와 부수품들을 자체로 막들이 보장하였고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현원부문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탄광의 일군들과 판부들은 새로운 벨트장을 재구하고 만수원m의 구간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 날 대도구와 함께는 사람들이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탄광일군들은 『현원을 책임지고 만수원m을 보증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이들은 수십만톤의 블록으로 많은 쇠봉발, 풍크리트혼합물을 퍼복용을 절실히 하기 위하여 냉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세상을 깨끗이 하였다.

그때 풀이 풀이커버 풍차를 책임졌던 김영길기술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怙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석탄증산으로 주체비료생산기지에 보내주고있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怙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현일 놀라운 굴진실적을 올리

많은 자체와 부수품들을 자체로 막들이 보장하였고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현원부문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탄광의 일군들과 판부들은 새로운 벨트장을 재구하고 만수원m의 구간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 날 대도구와 함께는 사람들이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탄광일군들은 『현원을 책임지고 만수원m을 보증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이들은 수십만톤의 블록으로 많은 쇠봉발, 풍크리트혼합물을 퍼복용을 절실히 하기 위하여 냉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세상을 깨끗이 하였다.

그때 풀이 풀이커버 풍차를 책임졌던 김영길기술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怙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석탄증산으로 주체비료생산기지에 보내주고있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怙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현일 놀라운 굴진실적을 올리

많은 자체와 부수품들을 자체로 막들이 보장하였고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현원부문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탄광의 일군들과 판부들은 새로운 벨트장을 재구하고 만수원m의 구간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 날 대도구와 함께는 사람들이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탄광일군들은 『현원을 책임지고 만수원m을 보증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이들은 수십만톤의 블록으로 많은 쇠봉발, 풍크리트혼합물을 퍼복용을 절실히 하기 위하여 냉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세상을 깨끗이 하였다.

그때 풀이 풀이커버 풍차를 책임졌던 김영길기술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怙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석탄증산으로 주체비료생산기지에 보내주고있다.

『난민이 중점되는 속에서 전두장에 결사원들의 정신, 불怙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한시락 한시락 전진으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현일 놀라운 굴진실적을 올리

많은 자체와 부수품들을 자체로 막들이 보장하였고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현원부문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탄광의 일군들과 판부들은 새로운 벨트장을 재구하고 만수원m의 구간에 벨트콘베이션화계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류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 날 대도구와 함께는 사람들이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탄광일군들은 『현원을 책임지고 만수원m을 보증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도구와 함께는 전원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갔다.

이들은 수십만톤의 블록으로 많은 쇠봉발, 풍크리트혼합물을 퍼복용을 절실히 하기 위하여 냉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세상을 깨끗이 하

고려인 삶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개성을 먼저 생각한다. 그만 큼 개성은 인삼의 원산지일뿐 아니라 인삼가공지도 유명한 고장이기 때문이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개성인삼은 사람들의 병 치료와 장수에 좋은 약재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지도 유품, 맛도 제일, 약

약초의 왕

우리나라 속임에 삶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개성고려인삼의 신기한 약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고장 대성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는 단마미팅장의 대답을 찾을 수 있었다.

라락장 총도 근본은 씨앗이다.

개성지역의 이름은 산들인

총마을과 천마을이 가보이아

개성고려인삼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다. …

뜻밖에도 이 대답의 주인공은 『리제미』를 비롯한 유명한 역사인물에 대한 정평사화를 많

이 칭찬한 경질호작이었다.

『이제 기자용부가 총악산과

잇당은 천마산을 빙어가보

히 많이 알고 있는 그가 개성지

방에서는 평소를 떠난 인삼을

생각할 수 없고 또 인삼이 없는

평소를 알고 한 말은 참으로

통이전진하였다.

우리는 삶의 자제가 우아하여 어머니모습으로 애려온다는 종 악산으로 향하였다. 총악산 기슭에서 만난 만대유적관리소 강사 성은 풍물가를 끌어주는 구수한 인삼질이었다. 우리는 저도

정평사화에 실위하였다.

옛날 이 고장의 한 죄녀가 총

악산에서 사자리를 짓길 때 가

달린 신기한 풍물리를 달아며

인삼재배지인 뿐아니라 조

유명한 특산이 많은 내조국 강산

인삼의 원산지인 개성지방을 찾아서 (2)

호도 죄고인 개성고려인삼이 고고적 부여 뿐만 아니라 고장의 특산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개성인삼은 사람들의 병

치료와 장수에 좋은 약재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

니다.』

당지도 유품, 맛도 제일, 약

약초의 왕

고성지역의 예쁜가 되었

다고 한다. 그 꽃이 바로 미간

에서는 신기한 약초라고 하여

인삼의 조상은 산삼이다. 산삼

에 대한 이야기는 높아나지 우리

였다. 총악산과 천마산 사이에는

아이를 업은 흰 풍경에 힘을

나타내는 산악산과 천마산

의 대명사로 유명한 풍경이다.

산악산과 천마산은 산삼을

제거하고 풍경을 살피는

인삼을 찾는다. 그 꽃은

인삼의 꽃이다. 그 꽃은

